



CUAC ACC-18 네트워크 보고서

투표이사회: **The Revd Canon Prof Peter Neil**, Bishop Grosseteste University, Lincoln, UK, *Chair*; **Dr D. M. Davamani Christofer**, American College, Madurai, India; **Dr Joel L. Cunningham** The University of the South, Sewanee, Tennessee, USA, *Treasurer*; **The Revd Dr Robert Derrenbacher**, Trinity College, Melbourne, Australia; **Dr Lilian I. Jasper**, Women's Christian College, Chennai, India, *Secretary*; **The Revd Dr Canon James Kombo**, St. Paul's University, Limuru, Kenya; **Dr Gisela D. A. Luna**, Trinity University of Asia, Quezon City, Philippines; **Dr Christine Johnson McPhail**, St. Augustine's University, Raleigh, North Carolina, USA; **The Rt Revd Dr Renta Nishihara**, Rikkyo University, Tokyo, Japan; **Prof Eunice Simmons**, The University of Chester, Chester, UK; **The Rt Revd Todd Townshend**, Bishop of Huron, London, Ontario, Canada; **The Rt Revd Martin Wharton**, Bishop of Newcastle (Retired), UK, *Vice Chair*; **The Revd Canon James G. Callaway, DD**, *General Secretary*.

목적: 세계성공회대학교협의회(CUAC, Colleges and Universities of the Anglican Communion)는 세계성공회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네트워크로, 하느님 세상의 적극적이고 대응력 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두고 있는 회원 학교들이 다른 회원들과 그리고 사회 및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공회의 무언가를 네트워크로 조직하는 일은 에너지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65 개의 성공회 고등 교육 기관을 확인했지만, 현재 66 개만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참여 지표로써 해석).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UAC의 운영에 있어 보물과 같은 존재는 1년에 8회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는 위에 언급된 5개 대륙 출신의 12명의 이사진입니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모임 시간으로 정해진 GMT 13:00은 미국 스와니는 오전 7시, 호주 멜버른은 밤 23시입니다!

시장의 힘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고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상품화를 향한 돌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졸업 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술만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경제적 압력이 있습니다. 반면 성공회적 목표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것뿐 아니라, 합의와 선교정신의 사회적 약속에 이르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선교의 정신에 대한 헌신으로 이를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육기관 자체가 그들의 유산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구, 주교, 사제, 평신도가 그들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기부하고 기도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주요 사명(Five Marks of Mission)과의 관계: 성공회적 고등 교육 속의 학생의 여정은 '되어가는(becoming)' 기회의 도전과 마주합니다. 학생들은 독립 생활의 새로운 자율성을 발견하고, 커리어와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노출됩니다.

이 여정과 병행하여 일어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란 자신의 웰빙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의 존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공회 고등

교육의 특별한 카리스마는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세 번째 주요 사명의 선교 정신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협회의 회원 학교들은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를 추구함을 통해 이를 제공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봉사와 긍정적 영향이 필요한 커뮤니티에 배정합니다. 한 회원 학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식과 자원과 관계를 양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웰빙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봉사 시간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발적 봉사를 독려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CUAC는 대표적인 2주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매년 필리핀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국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인간적 차원을 발견하고, *사회의 부당한 구조를 변혁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해야 할 필요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는 네 번째 주요 사명의 정신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달리, 운동이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합니다.

고등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 협회의 ‘정체성 및 인격 선언’의 관점에서 자기 주변 세계의 상태를 감지하고, *창조의 온전함의 보호, 그리고 지구와 그 다양한 커뮤니티의 생명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섯 번째 주요 사명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CUAC 기후 위기 작업반’(CUAC Climate Crisis Working Party)은 COP 회의 후 전 세계 회원들의 활동 보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CC-17 이후 활동: 팬데믹으로 인해 성공회 고등 교육 기관들의 지역사회 기반 교육을 통한 변화 모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재정적인 타격도 입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Triennial Conference가 런던에서 2020년 7월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참가 등록까지 완료되었지만, 이 행사는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회원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CUAC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분기별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초반에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이후 주제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열린 세미나 VIII의 주제는 ‘*팀워크의 약속: 효과적인 팀워크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들은 유익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Triennial Conferences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한 공간에 모임으로써 일어나는 커뮤니티 구축 잠재력이 없었습니다.

2026년 ACC-19까지 향후 3년간 목표 및 계획: 무엇보다 올해 7월, 6년 만에 Triennial Conference를 재개합니다. 11차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커뮤니티 재발견: 진실 분별, 배움 심화, 커뮤니티 강화*’이며,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됩니다. 이 주제는 줄어든 역량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다룹니다. 고등 교육 및 지역사회 문제 외에도, 호주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집단적 토지 정의를 위한 원주민의 투쟁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조의 찬란함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Triennial Conference의 경험은 향후 네트워킹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시간인 만큼, 우리는 이번 Triennial Conference에 대해 90명의 대표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이 지속되고 오세아니아로의 여행하는 비용이 증가했지만, 그동안 억눌려야 했던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993년 캔터베리 컨퍼런스 이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1962년 창립된 성공회 대학 협회의 30년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번에 CUAC의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지낸 시간을 통해 얻은 큰 교훈은 CUAC 네트워크가 성공회적 고등 교육의 요구와 기회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면 회비 및 기타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운영 수입과 기금 자본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지원을 모색하는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저는 협회를 위해 모금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대학을 위해 모금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회 출간물이나 소통이 주로 협회 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위주였다면, 이제는 점차 더 넓은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공회 대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협회 자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미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성공회적 고등 교육 사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성공회의 통합하는 역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축하해야 할 한 가지 하이라이트: 완벽한 과거는 아닐지라도, 미국 성공회 교회의 인종 정의에 대한 긍정적 공헌의 아름다운 유산은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흑인 대학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2개 성공회 흑인대학(HBCU)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있는 St. Augustine's University 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덴마크에 있는 Voorhees University 입니다. 일곱 성공회 대학 중 남은 이 두 곳을 지원하는 것은 CUAC의 주요 사명입니다. 이는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약 7년 전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성공회 HBCU를 전담하는 교회 전반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파생된 것 중 하나는 최초의 흑인 성공회 사제 압살롬 존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대신하여 매년 헌납하는 것입니다. Presiding Bishop Michael Curry(마이클 커리 의장주교)의 강력한 지지로 작년에 이 기금은 \$200,000 이상을 모금하여 본질적으로 두 대학에 대한 교회의 지원을 두 배로 늘렸으며 지원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과제에 외부 지원의 도움을 받은 예입니다. 아직 해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압살롬 존스 기금(Absalom Jones Fund)은 이 두 대학의 존재와 필요를 더 널리 알렸고, 이는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ACC가 논의해야 할 한 가지 질문: 기후 위기는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한 우리 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든 일들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CUAC는 COP 26에 대해 기후 위기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회원 대학마다 여러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가 있었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대체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세계성공회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ACC-18에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어떻게 심화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면 이는 생산적일 것입니다.

Jamie Callaway
General Secretary
(제이미 캘러웨이, 사무총장)